

2002 한국 건축 문화 대상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시공

김인겸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전무

“국제 경기장으로서의 까다로운 규정 준수 쉽지 않아”

21 세기를 맞아 대지를 박차고 웅비하는 부산, 넘실대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파도, 전 세계와 더불어 호흡하는 부산의 미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를 연계하는 열린 공간을 표출하는 곳. 바로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쇠미산 계곡에 자리잡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다. 지난 6월 한반도를 온통 ‘오 필승 코리아’의 붉은 물결 속으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축구 경기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그 곳이다.

날렵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지붕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다. 반쯤 덮이는 둥근 지붕은 항구 도시인 이 지역의 이미지처럼 물결 무늬와 파도의 형상을 닮았다. 또 지붕과 경기장을 토성의 띠처럼 두른 주진입로가 마치 우주선이 내려와 앉은 듯하다.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듯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실로 한국 건축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 속에 ‘2002 한국 건축 문화 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되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이 2만 8,000여 평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총공사비도 2,232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FIFA 규정뿐만 아니라 IAAF(국제육상연맹) 규정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까닭에 시공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시공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김인겸 건축사업본부장은 시공 당시 국제 경기장으로서의 까다로운 규정이 쉽지않은 않았다고 솔직히 밝혔다.

“시공상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인장 케이블 막 구조 시스템 지붕 공사는 특히 국내 첫 시도된 신공법으로 많은 연구와 시공 경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주경기장은 당초 개폐가 가능한 돔형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하여 공사 도중 인장 케이블 막 구조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이 시스템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대형 경기장에는 처음 시도되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우려도 많았다.

“지붕 구조는 2mm의 오차 한도 내에서 시공을 해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철골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 첨단 광학 기기를 사용하여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케이블 설치시에는 290여 톤의 케이블을 48개

의 잣을 사용하여 동시에 인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엔지니어링업체, 하도급 업체 모두 상호 기술적인 긴밀한 협의로 성공적으로 시공, 전 세계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붕을 형성하였다고 김 본부장은 자부한다.

이처럼 어려웠던 지붕 공사를 끝내고나니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었다. 운동장 육상 트랙 공사였다. 운동장 육상 트랙 공사는 지붕 공사를 위한 장비가 운동장에서 철수된 이후에 시작하였는데 공사가 초여름부터 시작되어 한 낮의 기온이 삼십 몇도를 훌쩍 넘는 한여름까지 이어졌다.

“하부의 아스팔트 위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우레탄 시공 감독이나 시공 근로자 모두 옷을 입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마치 열대 지방에서 공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열기를 피해 야간에 불을 켜놓고 작업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제적인 육상 트랙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두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처럼 새카맣게 그을려 서로를 보면서 파안대소하였다고 한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성공적인 시공은 무엇보다 설계가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공기가 64개월에 이르는 긴 공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기초 설계 덕분이라며 설계를 맡았던 (주)공간종합건축의 이상림 사장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

